

HAPPY NEW YEAR

2025 설 가정예배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초대 ----- **인도자**
다함께 설 명절을 맞이해, 한 해 동안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 **다같이**

1절 |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2절 |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3절 | 주의 보좌로 나아 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 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후렴 |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 도 ----- **말은이(옆면참조)**

성경봉독 ----- **골로새서 3:12-14** ----- **다같이**

12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 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13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말 씀 ----- **사랑으로 이어가는 가정** ----- **말은이(옆면참조)**

가족시간 ----- **덕담과 기도제목 나누기** ----- **각자 돌아가면서**

마침기도 ----- **가족대표**

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의 시간을 돌아보며 기쁨과 감사의 순간뿐만 아니라 눈물과 한숨 짓던 시간 속에서도
우리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다가올 시간, 때로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앞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발걸음을 가장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과 소망을 더해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가족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욱 깊이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 골로새서 3:12-14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합니다.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12절).
이는 단순히 우리의 내적인 태도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관계와 행동 속에서 드러나야 할 중요한 지침입
니다.
뜨거운 여름날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쉬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더운 날이라도 그늘 아래
들어가면 시원하고 안락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공허함과 자비, 사랑으로 옷 입는다면, 그것은 우리 자
신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도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나도 살아날 뿐 아니라 주위 사람
들도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용서와 사랑을 강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
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13-14절).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부모도 처음 부모 노릇을 하다 보니 여러 시행착오를 반복할 때가
있고, 자녀들도 여러 혼란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
해 서로 크고 작은 실수로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관계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족들에게 정직하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약함을 고백하
고, 불완전함을 용납해 주는 관계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게 합니다. 또한, 우리를 끊임없
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이어지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을 가장 구체적으로 연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훈련
장이자, 그 사랑을 가장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가정이 서로를 용납하며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옷 입어가며 더 깊이 하나
로 이어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